

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검 포항지청

공보담당관 지청장 서봉규

전화 054-251-5500 / 팩스 054-250-4651

보도자료 2018. 5. 3.(목)

자료문의 : 형사2부장실
전화번호 : 054-250-4302
주책임자 : 부장검사 허인석

제 목

한예총 포항지회장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결과

-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(지청장 서봉규)은 (사)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전·현직 포항지회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,
 - 자기부담금 마련한 듯 위장하는 수법으로, 포항시로부터 가요제 행사 보조금 등 합계 약 3억 원을 편취하고, 그 중 1억 원을 생활비,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유용한 전·현직 포항지회장 2명을 구속 기소함
 - 전직 및 현직 지회장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보조금 비리를 저지르며 단체의 회장 직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사안임
- 향후에도 보조금 비리 등 국고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토착비리에 대해 엄단해 나갈 예정임

I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

번호	피의자	직책	피의사실의 요지	처분
1	A(59세)	(사)한예총 포항지회장 (2014~현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5. 8.~2016. 7. 자부담금 마련을 가장하여 포항시로부터 8회에 걸쳐 '2015 시민가요제' 보조금 등 합계 1억 1,800만원 편취, 7,000만원 횡령 ▶ 정상적인 지출을 가장하기 위해 포항시에 위조한 영수증 13매 제출 [사기, 업무상횡령, 사문서위조, 행사] 	2018. 4. 17. 구속기소
2	B(67세)	(사)한예총 前 포항지회장 (2012.~2014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2. 5.~2016. 7. 자부담금 마련을 가장하여 포항시로부터 12회에 걸쳐 '2013 시민가요제' 보조금 등 합계 1억 8,000만원 편취, 6,000만원 횡령 (2회 2,000만원은 A와 공모) [사기, 업무상횡령] 	2018. 5. 2. 구속기소

II 수사 경과

- 2017. 11. 포항남부서, A에 대한 보조금 1,000만원 횡령 사건 송치
- 2017. 11.~2018. 3. 계좌추적 및 참고인 조사 등
- 2018. 4. 17. 현 지회장 A 구속 기소 (4. 13. 구속)
- 2018. 5. 3. 전 지회장 B 구속 기소 (4. 26. 구속)

III 수사 결과 및 향후 계획

- 과거 숨겨진 비리에 대한 수사
 - 지회장 A가 2015년 및 2017년 유사한 내용의 횡령 사건에서 2회 불기소 (혐의없음) 처분을 받은 사실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여, 계좌추적 등 물증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
 - ※ 3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64개 거래내역을 조회, 영수증 명의인 등 조사
 - 수사 결과, 지회장 A는 허위 내용의 정산보고서와 영수증을 포항시에 제출하는 한편 행사 출연진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과 前 지회장 B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해온 사실까지 밝혀냄
- 보조금 비리 적발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 조치
 - 피의자들은 보조금 교부기관인 포항시에 위조한 영수증, 거래내역을 조작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해옴
 - 공공예산을 소위 '눈먼 돈'으로 인식하는 '도덕적 해이'를 방지하고 보조금의 사후 감독에 참고하도록 포항시에 관련 내용을 전달